

19세 이상 누구나 참여...권리당원 자동으로 선거권 부여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인단 모집·투표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오전 10시부터 당 대선후보 경선을 위해 선거인단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이번 경선은 기존 민주당 당원뿐만 아니라 선거권을 가진 모든 일반 국민이 참여해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완전국민경선이다. 뿐 아니라 최근 정당지지를 1위를 독주하고 있는 상황여서 이날 주요 포털사이트에서는 '민주당 경선 참여방법' 등이 검색어 상위권에 올라올 정도로 관심을 모았다.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민주당에 따르면 대선후보 경선 참여 자격은 2017년 2월15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국민이다. 즉, 1998년 2월15일 출생

자부터 참여자격이 있다. 단,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선거권이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등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경선참여가 가능하다.

1차 선거인단 모집은 15일부터 탄핵 심판 결정 전 3일까지다. 2차 선거인단 모집 날짜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여서 미정이다.

민주당 경선 선거참여 방법은 ▲중앙당 및 시도당 지정 접수처 현장(오전 10시~오후 6시) 접수 ▲전화(콜센터 1811-1000, 매일 오전 10시~오후 9시) 접수 ▲온라인(www.minjoo2017.kr, 24시간 가능)에 접수 등 세 가지다. 단, 온라인으로 선거인단

현장·전화·온라인 접수 가능

현장 접수 지정투표소서 투표

투표 방법 선택후 변경 불가

에 접수하고 싶으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오는 19일까지는 범용인증서 사용만 가능하며 20일부터는 범용·은행용 공인인증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전국 대의원과 권리당원은 자동으로 선거인단이 등록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즉 일반당원은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대의원이거나 권리당원인지 확인하려면 중앙당 및 각 시도당 조직부에 문의하면 된다.

재외국민의 경우 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통과되지 않아 현재로는 어렵다고 민주당 측은 알렸다. 다만, 2월 중 해당 법이 통과되면 경선투표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투표는 어떻게=선거인단에 등록했다면, 직접 지정 투표소 현장에 찾아와서 투표를 하거나 모바일 ARS를 통해 투표할 수 있다. 단 선거인단 등록시 현장 서류접수자는 지정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고 전화나 인터넷 접수자는 선택이 가능하다. 집 전화로는 현장 투표만 2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투표 결과는 순회투표 때마다 해당 지역에서 치러진 ARS, 투표소 현장투표를 개표해 권역별 투표 때마다 발표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운데)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시국과 관련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 “투표 방법을 선택한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다”며 “처음 신청시 신중하게 생각하고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민주당 대선후보 선거인단 모집 선언식은 ‘김정남 피살’ 사건으로 취소됐다.

애초 민주당은 이날 오전 당 대표실에서 선언식을 열어 선거인단 모집을 공식으로 시작한다는 점을 알리고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었지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의 피살소식이 알려지면서 선언식을 생략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엄중한

국가적인 상황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 관계자는 “비공개 최고위에서 국민들이 안보 불안을 느낄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한 상황에서 행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일단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더불어민주당 경선일정 및 참여방법	
□ 경선일정	
1차 선거인단 모집	2월15일 시작 3주간 진행 (만 19세 이상 모든 국민 참여 가능)
2차 선거인단 모집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 이후 1주일간 대의원, 권리당원 25만명(전국)자동선거권 부여
1차 경선 투표	대통령선거일 5주전까지 완료
2차 경선 투표	대통령 선거일 4주전 (1차 경선에서 과반투표자가 없을시 진행)
순회경선	4개 권역 호남·충청·영남·수도권 순
□ 선거인단 신청	
자격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완전국민경선허치)
신청방법 (3가지 방법중 택일)	- 시도당 당사(17개 민주당 당사)직접 방문 신청서 작성 or 팩스 제출) - 전화신청(콜센터 1811-1000) - 무선전화 : 한명등록, 유선전화 : 두명까지 등록(부부배려)신청 - 인터넷 접수 신청(올해 첫 금융기관용 무료 공인인증서 사용 허용)

사활 건 첫 경선지...호남 선거인단 30만명 넘을 듯

투표율 65%...10만표면 과반

지지가 동원 등 과열 양상도

더불어민주당이 15일부터 당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 선거인단 모집에 나섰다. 민주당은 현재 추세로는 200만 명이 넘는 선거인단이 구성되는 등 사상 최대의 흥행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 지지율이 40% 대를 넘어서고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후보 등의 지지를 함께 과반을 넘는데 정권교체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경선 흥행이 결국, 후보들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민주당의 정권 교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의 선거인단은 30만 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2012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광주·전남에서 14만 명, 전북 9만5000여 명이 선거인단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현재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호남 선거인단 규모는 최소 30만에서 많게는 35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지난 대선 경선에서 선거인단의 57%가 실제 투표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이번 경선에서는 65% 정도의 투표 참여율이 기대되고 있다.

호남의 선거인단을 30만 명으로, 투표 참여율을 65%로 가정한다면 19만5천여 명이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과반 지지의 마지노선이 10만 명 정도가 되는 셈이다.

각 후보 캠프에서는 호남에서 최소 7만 명 이상의 지지 선거인단을 모집, 승기를 잡아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총선도가 높은 선거인단을 최대한 확보한 뒤, 호남 민심 맞춤형 메시지와 공약 등을 통해 지지세를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다. 일부 캠프에서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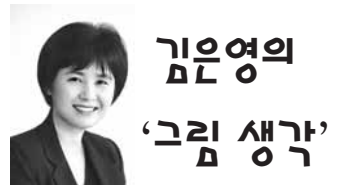
지자들을 호남 선거인단에 등록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민주당 경선 첫 번째 관문인 호남에서의 승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호남 경선에서 과반 이상의 지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는 국민의당 등 타 정당 민주당 경선에 참여, 역 선거인단 참여로 인한 역 선택 가능성도 경계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등 일부 계파에 ‘문재인은 막아야 한다’는 글과 함께 민주당 경선에 참여, 역 선택에 나서야 한다는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모 정당에서도 당원들에게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에 등록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말이 돌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경선의 첫 관문인 호남에서 승리하기 위해 각 후보 캠프에서는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며 “자칫, 과열 경선으로 인한 후유증도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감흥 없는 흰눈, 나이 탓인가 시대 탓인가



(175) 백설

“...백설이여! 잠시 묻노니, 너는 지상의 누가 유혹했기에 이 곳에 내려오는 것이며, 그리고 또 너는 공중에서 무질서의 쾌락을 배운 뒤에, 이 곳에 와서 무엇을 시작하려는 것이냐? 천국의 아들이요, 경쾌한 족속이요, 바람의 희생자인 백설이여! ...” <김진섭 작 ‘백설부(白雪賦)’ 중에서>

지난 주말, 모처럼 펄펄 눈 날리는 거리를 걸으면서 경건한 눈 마중으로 흰눈을 예찬한 산문 ‘백설부’를 떠올렸다. 동심이 사라져서인지, 흰 눈이 내려도

이를 제대로 누리지 못해 조금 서글퍼진다. 어쩌면 무더진 감수성 때문이 아니라 출퇴근길을 걱정하는 회사형 인간으로 진화되어서였을까? 올겨울 눈다운 눈이 내리지 않아 무언가 어정쩡해 자주 뒤돌아보는 것을 보면 내심 흰눈을 기다리기는 했던 것 같다.

양나의 작가(1982~)의 작품 ‘살-풍경’(2015년 작)은 꼭 이맘때의 설경을 묘사한 듯하다. 입춘 지난 백설은 잡시의 별누에도 본색이 드러나기 마련. 퇴락한 산동네 집이란 집은 모두 굴속에 잠긴 듯하고, 옥상과 마당, 어깨를 마주하고 있는 지붕 위 잔설이 그지없이 정겹다.

양나의 작가의 풍경은 단순한 회화라기보다 골판지와 채색으로 완성한 반입체적인 작품이다. 캔버스에 스캐지를 하고 골판지로 모양을 떠서 오려낸 다듬은 벽과 지붕 담장 마을길을 이어가면 서 그린 ‘마음그림’이다. 작가가 어린



양나희 작 ‘살-풍경’(2015년)

시절 불박이로 살았던 순천 인제동의 한 풍경일 수도 있고, 삼급학교 진학을 위해 옮겨 왔던 광주의 여러 동네들의 조합 같기도 하다.

작가는 “고향에서 보내준 엄마의 택배상자를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작업의 재료로 삼게 되었다”고 말한다. 택배를 받았을 때의 반가움이 찾아들면 이후 누군가에게는 처치 곤란한 쓰레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계 수단이지만 작가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작업의 재료이자 영감의 원천, 삶을 표현할 언어가 된 것이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박사>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증-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